

편집 후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작년까지는 그말이 단순히 상투어로만 생각되었는데 올해 88년을 보내는 이즈음에 서보니 정말 多事多難이란 말이 그렇게도 적절한 말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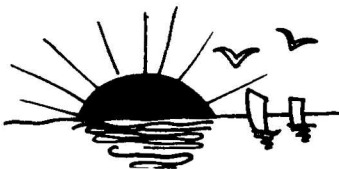
누구나가 정도의 차는 있겠으나 한해가 간다는 데에 아쉬움과 후회도 가질테지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라는 호기심으로 새해를 맞는 기분은 언제나 좋은가 보다.

기사년을 맞는 새아침,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과 그간 바쁘신 중에도 좋은 글 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새해인사 올린다. <卿>

허둥대던 한해였지만 세모를 맞아 예년과는 다른 감회에 젖어본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해였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의미를 지난 몇달간 찾아보았으나 결국은 낡은 사고와 지식으로는 모든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고, 자기성찰과 재충전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새해에는 부디 신나는 변화만을 기대하며 「방재와 보험」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려면 대외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적담
- 시, 수필, 수기, 풍토 등 문예작품

보낼 곳

11510-011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표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8 / 겨울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40호>

등록/마- 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1989년 1월 1일
인쇄/1988년 12월 25일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창미문화사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